

청소년의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IT of Teenagers and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ung chul sang

Department of Youth Cultural Counseling, Hoseo University Professor

요약 목표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향에 맞는 진로 및 직업을 택하는 일은 자아실현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 산업사회로 빠르게 발전함으로 인해서 진로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그릿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반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426명을 대상으로 AMOS 22.0과 SPSS Statistics 22.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그릿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도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하위요인인 정보적지지와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와 물질적지지 모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릿과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환경에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은 물론 개인의 특성인 그릿을 증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the GRIT of teenagers on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verify whether there is a mediating effect between GRIT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with a view to assisting such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For this study, a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MO 22.0 and SPSS Statistics 22.0, with 426 teenagers in general middle schools.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 GRIT of teenager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s well.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IT of the teenagers and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social support, and the sub-elements of the social supports, which are emotional support, information support, evaluatory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all had mediating effects. These study findings showed that GRIT and social support were influential factors up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mong teenagers, it is necessary to provide social support in the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s, and it is also helpful to enhance the GRIT, which is an individual trait.

Keywords : Teenagers, Grit,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Social Support,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Jung chul sang(Hoseo Univ.)

email: campkorea@hanmail.net

Received November 22, 2019

Accepted January 3, 2020

Revised December 19, 2019

Published January 31, 2020

1. 서론

‘목표가 없는 인생이란 키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 라는 말처럼, 목표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향에 맞는 진로 및 직업을 택하는 일은 자아실현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 산업사회로 빠르게 발전함으로 인해서 진로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변화와 적응을 동시에 경험해야 하는 청소년은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자아실현의 길 또한 어려운 실태이다. 최근 현 학생 부종합전형의 전신인 2009학년도부터 시행된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에 따라 대학입시 전형이 다양화되어, 진로준비가 대학입학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청소년기의 진로에 관한 문제가 더욱 부각 되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업과 진로에 대한 이중의 스트레스는 진로준비행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진로계획과 진로목표의 실현 및 진로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을 진로장벽[1]이라 하는데, 그럼에도 진로장벽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이 모든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진로장벽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양식 및 심리적 변인에 의해 다르게 지각되고 대처하는 방식 또한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2]. 이에 따라 진로장벽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진로준비를 위해 필요한 변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보면, 심리적 변인인 진로성숙도[3-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 진로자기효능감[5], 구조적 원인으로는 진로결정수준[6], 진로장벽[7]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적 특성으로 끈기와 몰입, 관심과 열정, 끊임없는 노력 등에 의해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개인적 특성 중 하나가 그릿이다. 그릿이란 장기 목표에 관한 끈기 및 열정(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이다[8]. 성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추적한 결과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불굴의 끈기와 의지, 열정을 모두 포괄하는 그릿이 필수적이다[9]. 진로 준비 그리고 진로 결정에 끼치는 영향 분석결과, 진로준비행동 및 대학전공과 관련된 진로 선택에 그릿은 유의한 영향이 있다[10]. 그릿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 전공흥미를

통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효과를 주는가 하면[9], 고등학생 대상 노영석(2016)의 연구[11]에서는 그릿의 구성요인 가운데 ‘노력의 꾸준함’ 변인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변인인 그릿 외에 환경적인 변인으로 외부와 주변 환경의 도움을 받는 사회적 지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여러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말하며[12], 진로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는 진로 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확인되었고[13],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한다[14].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은 대학생의 경우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진로탐색활동을 더 자유롭게 잘하고, 타인이 지지 해준다는 지각은 진로준비행동을 자율적으로 하고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인다[2]. 이상의 연구에서 보면 그릿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회적 지지가 예측변인으로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기존 청소년 연구는 주로 실태조사나 질적 연구에 한정되어 개인 내적 요인 및 환경 변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희소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그릿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그릿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그릿

사람들은 개인의 목표성취를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간다. 특히 인내와 끈기, 그리고 근성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위한 필수요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는 경우도 많고 의지는 변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실천하여 최종적으로 성공영역에 이르는 개념을 그릿이라고 한다.

Duckworth(2006)에 의해 처음 도입된 그릿이라는 개념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높고 특정한 목표에 관한 결정과 인내를 의미한다[15]. Duckworth 외(2007)의 연구에서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지와 노력을 뜻하는 “Grit”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러한 그릿이 전문적인 수행에 주요 변인임을 증명했다[8]. 그들은 인지적인 특질(trait)인 IQ 등이 개인의 수행에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하듯 비인지적인 능력도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여기고, 자신의 재능 즉, 타고난 능력 이상의 것에 도전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비인지적인 능력인 그릿(Grit)으로 명명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 김주환(2013)에 의하면, 그릿이란 자신이 설정한 목표성취를 위하여 열정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지속으로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하였다[16]. 또한 그릿은 “성장(Growth), 회복력(Resilience),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끈기(Tenacity)”의 앞 글자를 각각 딴 것이다[45].

Duckworth 외(2007)의 연구에서는 그릿과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여러 척도를 분석, 이를 측정하는 동기 척도 간단형 검사(이하 Grit Scale-S)로는 크게 ‘노력의 꾸준함(perseverance of effort)’, ‘관심의 지속성(consistency of interest)’의 2개의 차원으로 측정하고 있다[8]. 먼저, 노력의 꾸준함에는 ‘나는 중요한 도전을 위하여 좌절을 극복해 왔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는지를 측정하고, 관심의 지속성은 ‘나는 한동안 새로운 계획이나 생각에 몰두하게 되지만, 곧 흥미를 잃게 된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얼마나 장기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지와 얼마나 목표가 분명한지의 정도이다.

현재 그릿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외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며,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8, 17-18]. 학업 외에 진로와 관련된 변인으로서 연구가 시작되고 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회복탄력성[19-20], 자기조절 효능감[21], 진로준비행동[10-11], 사회적지지[10] 등 주요한 진로변인과 그릿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진로와 관련하여 참여자의 노력과 관심 유지에 대한 요소를 확인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왜곡과 오류의 위험성을 제거하고자 관심의 일관성과 노력의 지속성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는 오랫동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열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단순히 생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방식으로 진로준비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올바르게 합리적인 진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를 결정한 후에 그 결정 사항을 이루기 위한 제반 행동을 의미한다[22]. 요컨대 자신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올바르게 합리적인 진로를 위하여 실행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그 결정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행하는 구체적 노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 진로준비행동이다[23].

진로준비행동의 구성요인은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 3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였다[22]. 첫째, 정보수집 활동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 및 진로목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도구구비 활동이란 목표달성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요구되는 도구 등을 구매 혹은 관련 자격 획득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목표달성이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한 도구 및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써 이를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최윤경과 김성희(2012)는 자기이해행동, 직업능력향상행동 및 직업세계탐색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진로준비행동의 구성요소를 분류하였고[24], 최현민(2018)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보수집활동, 진로탐색활동, 취업준비활동, 직업체험활동 등 4요인으로 분류하였다[25].

그간 진로에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진로정체감 및 진로성숙과 함께 흥미, 지적 능력, 성격 및 적성 등과 같이 개인의 인지 및 태도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올바르게 합리적인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행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적 차원의 중요성은 주목받지 않았다[23]. 하지만 실제 진로상담 및 지도 모습에서 진로정체감이나 진로성숙도 등의 태도, 인지적인 측면은 물론 진로준비의 실천적 행위를 촉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의 행동적 차원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윤정원(2017)은 대학생 그릿 중, 노력의 지속성 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26]. 진로준비행동에 끼치는 심리적, 인지적 선행요인을 확인 및 구조적 관계를 증명하고자 한 홍아정 외(2017)의 연구에서는 그릿의 하위변인인 노력지속성과 흥미일관성,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인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활동 및 목표달성 활동의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고, 이것이 진로준비행동 및 성찰학습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27].

한편 사회적 지지는 수준은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진로탐색활동, 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28]. 그리고 송현심, 홍혜영(2010)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의 정보적지지 요인은 진로준비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함으로써 직업 정보를 제공해 주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촉진시키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지와 도움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2].

2.3 사회적지지

청소년은 부모, 교사, 친구 등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받는 나쁜 영향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 스스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진로에 관해 일반적으로 자신이 바라거나 혹은 자주 접하는 다른 사람의 요구 및 기대에 의해 진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려는 경향을 지닌다[29].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란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라고 정의하였고[30], 경제·사회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스트레스적 상황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때 보다 친구나 교사, 외부자원 체계로부터 더 큰 심리적인 이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31].

진로와 관련된 사회적 지지 유형에는 가족지지, 부모지지, 또래지지, 학교의 진로지원 시스템, 지역사회, 교사지지 등 여러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의 지지는 격려, 기대, 역할모델 관점에서 자녀의 진로발달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32-33].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적으로 부모와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김소영과 홍세희(2013)의 연구에서 진로 관련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탐색행동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34], 강란혜와 이미정(2011)은 가정과 학교의 진로지지 모두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35].

한편,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그릿과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진(2017)은 중학생의 그릿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고[36], 김아영(2018)도 고등학생의 그릿과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37].

따라서 사회적 지지 변인은 청소년의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청소년의 그릿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진로에 대한 청소년의 신념을 발달시킴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함을 보여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의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은 Fig.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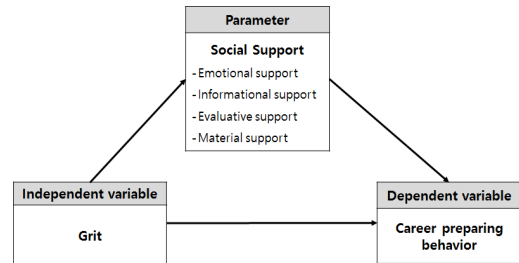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청소년기를 정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청소년 기본법(9세 이상 24세 이하)을 고려해, 일반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총 440부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9월 5일부터 2019년 9월 13일까지 실시되었고, 설문 소요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이며 응답한 설문지는 즉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에 대한 실시는 각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배포한 440부 모두 회수,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 자료 14부(3.2%)를 제외하여, 최종 유효 표본을 426부(96.8%)로 결정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남성이 53.5%(228명), 여성이 46.5%(198명)으로 남학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년은 중학교 1학년이 39.4%(168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2학년 32.6%(139명), 중학교 3학년 27.9%(1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AMOS 22.0과 SPSS Statistic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3.3 측정도구 및 출처

본 연구에서 설문을 실시하기 위해 사용될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문항들은 Likert의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먼저 청소년의 그릿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uckworth 외(2007)가 개발[8]한 Original Grit Scale(Grit-O)를 이수란, 손영우(2014)이 번안한 척도[17]를 사용하였다. 그릿 척도는 노력의 꾸준함(6문항)과 관심의 지속성(6문항)을 측정하는 총 12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Cronbach's α 값은 관심의 일관성 0.902, 노력의 꾸준함 0.811, 그릿 전체 0.893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tumpf 외(1983)가 개발한 CES(Career Exploration Survey)[38], Slaney(1983)의 Vocational Questionnaire II[39], 그리고 Westbrook 외(1985)의 Career Planning Questionnaire[40],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22] 등을 참고하여 박완성(2002)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준비행동 척도[41]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직업체험활동(5문항), 정보수집활동(10문항), 취업준비활동(2문항), 직업·학과결정활동(5문항)의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Cronbach's α 값은 정보수집활동 0.636, 직업·학과결정활동 0.804, 직업체험활동 0.775, 취업준비활동 0.657, 진로준비행동 전체 0.861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수준 측정을 위하여 박지윤(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30]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지윤(2017)의 척도[42]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 척도는 정보적 지지(6문항)와 정서적 지지(7문항), 그리고 물질적 지지(6문항)와 평가적 지지(6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Cronbach's α 값은 정서적 지지 0.856, 정보적 지지 0.878, 평가적 지지 0.896, 물질적 지지 0.870, 사회적 지지 전체 0.961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4.1 타당도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그릿, 진로준비행동, 사회적 지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청소년의 그릿, 진로준비행동, 사회적 지지의 개념신뢰도인 CR(composite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신뢰도 값이 기준치 0.7, 0.5이상으로 모든 측정도구에 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194.774(p=.000, df=32)$, GFI=0.908, CFI=0.943, NFI=0.933, IFI=0.944, RFI=0.906, TLI=0.920, RMR=0.029으로 연구모형의 변수에 관한 적합도가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였으며, 모든 요인부하량(λ)이 0.571에서 0.946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 요인에 관한 수렴타당성을 증명하였다.

4.2 주요변수의 상관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의 그릿(노력의 꾸준함과 관심의 지속성) 및 진로준비행동(정보수집활동과 직업학과결정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 사회적지지(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간 관계 분석을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0.147~0.866의 범위로 나타나고 있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으며, 각 변수들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Table 1. Correlation

	1	2	3	4	5	6	7	8	9	10
1	1									
2	.554**	1								
3	.339**	.315**	1							
4	.333**	.392**	.587**	1						
5	.268**	.166**	.593**	.377**	1					
6	.164**	.147**	.482**	.250**	.678**	1				
7	.396**	.339**	.462**	.413**	.509**	.344**	1			
8	.362**	.323**	.468**	.413**	.492**	.357**	.866**	1		
9	.327**	.290**	.447**	.406**	.469**	.297**	.849**	.829**	1	
10	.400**	.324**	.498**	.450**	.541**	.370**	.845**	.821**	.771**	1

**p<.01

1: Consistency of interest, 2: Steadiness of one's efforts, 3: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y, 4: Job Decision making activity, 5: Job experience activities, 6: Job preparation activities, 7: Emotional support, 8: Informational support, 9: Evaluative support, 10: Material support

4.3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적합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에 따라 Model 1-Model 5로 구분하였다. χ^2 , GFI, AGFI, RMR, NFI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Table 2. Research model fit

Model	χ^2 (p)	df	RMR	RMSEA	GFI	NFI	IFI	CFI
Model 1	194.774 ($p=0.000$)	32	.029	.109	.908	.933	.944	.943
Model 2	247.621 ($p=0.000$)	62	.030	.084	.910	.892	.916	.916
Model 3	230.809 ($p=0.000$)	51	.031	.091	.906	.900	.921	.920
Model 4	229.459 ($p=0.000$)	51	.028	.091	.912	.907	.926	.926
Model 5	257.303 ($p=0.000$)	51	.033	.098	.901	.887	.907	.906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3과 같다.

Model 1을 살펴보면, 그것은 사회적 지지($\beta=.509$, $p<.001$)와 진로준비행동($\beta=.170$, $p<.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beta=.57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를 살펴보면, 그것은 사회적지지 중, 정서적 지지($\beta=.547$, $p<.001$)와 진로준비행동($\beta=.135$, $p<.05$)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지지 중, 정서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beta=.58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을 살펴보면, 그것은 사회적지지 중, 정보적 지지($\beta=.501$, $p<.001$)와 진로준비행동($\beta=.182$, $p<.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지지 중, 정보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beta=.55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4를 살펴보면, 그것은 사회적지지 중, 평가적 지지($\beta=.452$, $p<.001$)와 진로준비행동($\beta=.201$, $p<.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지지 중, 평가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beta=.54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5를 살펴보면, 그것은 사회적지지 중, 물질적 지지($\beta=.481$, $p<.001$)와 진로준비행동($\beta=.215$, $p<.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지지 중, 물질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beta=.542$,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Hypothesis		S.T	β	S.E.	C.R.	P
Model 1	Grit	→ Social Support	.509	.056	7.601***	.000
		→ Career preparing behavior	.170	.038	4.500***	.000
Model 2	Grit	→ Emotional Support	.547	.053	7.311***	.000
		→ Career preparing behavior	.135	.035	3.829***	.000
Model 3	Grit	→ Informational Support	.501	.062	6.789***	.000
		→ Career preparing behavior	.182	.035	5.177***	.000
Model 4	Grit	→ Evaluative Support	.452	.068	6.365***	.000
		→ Career preparing behavior	.201	.032	6.281***	.000
Model 5	Grit	→ Material Support	0.481	0.064	6.725***	.000
		→ Career preparing behavior	0.542	0.04	8.268***	.000
	Material Support	→ Career preparing behavior	0.215	0.036	5.972***	.001

*** $p<.001$, ** $p<.01$, * $p<.05$

다음 <Table 4>는 그것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와 총효과와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Model 1에서는 그것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였고($p<.05$), 간접효과와 총효과도 모두 유의수준 $p<.05$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에 관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Model 2에서는 그것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였고($p<.05$), 간접효과와 총효과도 모두 유의수준 $p<.05$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 중, 정서적 지지에 대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Model 3에서는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였고($p < .05$), 간접효과와 총효과도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 중, 정보적 지지에 대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Model 4에서는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였고($p < .05$), 간접효과와 총효과도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 중, 평가적 지지에 대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Model 5에서는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였고($p < .05$), 간접효과와 총효과도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 중, 물질적 지지에 대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이 사회적지지[10]와 진로준비행동[10-11]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고, 김소영과 홍세희(2013)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언급한 것[3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청소년의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릿은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학생의 그릿을 발달시키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둘째, 청소년의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 모두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중학생들이 장기간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신의 흥미를 꾸준히 노력하고 유지하려고 한다면 교사, 친구,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게 될 경향이 높고, 이러한 태도가 실천적인 방식으로 이어져 진로를 준비하는 행위를 위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역경을 이겨냄으로써 위기적 상황에서도 더 잘 극복하며 도중에 포기하지 않게 함으로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는 김현주(2017)의 연구 결과[43]를 지지한다. 또한 학습 지원과 물리적 지원을 포함한 부모의 역할이 자신의 노력과 끈기로 인하여 더욱 개인의 진로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한 김미영(2017)의 연구결과[44]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의 열정 및 끈기와 함께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릿과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자신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올바른 합리적인 진로를 위하여 잘해낼 수 있다는 신념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환경에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은 물론 개인의 특성인 그릿을 증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으로는 오랫동안 목표를 세우고, 꾸준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끈기를 기를 수 있도록 또래 혹은 부모와 교사가 지지를 제공하고, 학교와 가정에서는 지지

Table 4. Indirect effect analysis of social support

Model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Model 1	Grit	Social suppor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70	.008	.291	.003	.461	.000
Model 2		Emotional		.135	.045	.319	.001	.454	.000
Model 3		Informational		.182	.006	.278	.001	.460	.000
Model 4		Evaluative		.201	.002	.247	.001	.448	.000
Model 5		Material		.215	.001	.261	.001	.476	.000

*** $p < .001$, ** $p < .01$, * $p < .05$

5.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그릿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반계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종 회수된 426명의 자료는 AMOS 22.0과 SPSS Statistics 22.0을 통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그릿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도

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A시에 거주하는 일반계 중학생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중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대표성을 지닌 표집으로 채택하여 연구를 시행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모형을 통해 그릿,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나, 아직 다루지 못한 주요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행동과 그릿은 학습과 관련된 동기적 차원이나 학업수행 과정과 관련된 변인으로 학습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학업 성과와 관련된 변인인 학업 성취도를 포함하여 더욱 통합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L. S. Gottfredson,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8, No.6, pp.545-579, 1981.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28.6.545>
- [2] H. S. Song, H. Y. Hong,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1, No.3, pp.1325-1350, 2010.
DOI: <https://doi.org/10.15703/kjc.11.3.201009.1325>
- [3] Y. K. Au, "The relation between the career counseling activity,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ation: Regulating effect of decision-making criterion for major",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2, No.5, pp.1793-1811, 2011.
DOI: <https://doi.org/10.15703/kjc.12.5.201110.1793>
- [4] J. M. Lee, B. R. Cho,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reative personality, university supporting, career matur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Vol.15, pp.41-59, 2015.
- [5] M. J. Ju, J. N. Kim, "The effect of anxiety and career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Vol.17, pp.157-174, 2011.
- [6] J. Y. Hwang, M. N. Ko, "A structural analysis of relations career decision statu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college student: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stress coping strateg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4, No.2, pp.135-150, 2015.
- [7] H. H. Kang, "Effect of career barrier on polytechnics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resilienc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8, No.1, pp.59-78, 2015.
- [8]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2, No.6, pp.1087-1101, 2007.
- [9] M. H. Kang, S. H. Yoon, D. H. Kim, D. H. Rhoo,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gri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 and major interest of natural scienc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5, No.4, pp.109-129, 2016.
- [10] E. H. Hwang,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GRIT i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of Korea, pp.16-17, 2017.
- [11] Y. S. Nho,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gri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Yeonsei University of Korea, pp.19-20, 2016.
- [12] M. E. Procidano, K. Heller, "Measur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riends and from family: Three validation stud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1, No.1, pp.1-24, 1983.
DOI: <https://doi.org/10.1007/bf00898416>
- [13] J. W. Kim, H. H. Kim,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level,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pp.741-766, 2016.
- [14] H. J. Jang, A. J. Hong, "Influence of social support up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reflective learning",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3, No.2, pp.17-40, 2014.
- [15] A. L. Duckworth, *Intelligence is not enough: Non-IQ predictors of achieveme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ennsylvania, 2006.
- [16] J. H. Kim. *Grit*. Gyunggi: Sum & Parkes, 2013.
- [17] S. R. Lee, Y. W. Sohn, "What are the strong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 Deliberate practice and Gri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10, No.3, pp.349-366, 2014.
DOI: <https://doi.org/10.16983/kisp.2013.10.3.349>
- [18] L. Eskreis-Winkler, A. L. Duckworth, E. P. Shulman, S. Beal, "The grit effect: Predicting retention in the military, the workplace, school and marriage", *Frontiers in Psychology*, Vol.5, pp.36-48, 2014.
DOI: <https://doi.org/10.3389/fpsyg.2014.00036>
- [19] H. J. Kim, C. W. Nam, S. K. Lee,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returnee college students and ordinary college students:

-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3, pp.433-449, 2015.
DOI: <https://doi.org/10.15703/kjc.16.3.201506.433>
- [20] M. Y. Shin, *The effects of brain education-based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on grit: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Cheonan, pp.31-33, 2018.
- [21] J. Y. Lee, *The role of self-regulatory efficacy and flow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of undergraduate students and the difficult anagram task performance*.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pp.8-10, 2017.
- [22] B. W.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p.26-31, 1997.
- [23] H. J. Lee,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wit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an undergraduate*.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pp.22-26, 2008.
- [24] Y. K. Choi, S. H.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5, pp.2085-2097, 2012.
DOI: <https://doi.org/10.15703/kjc.13.5.201210.2085>
- [25] H. M. Choi, "The effects of career mentor on high school students' GRIT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1, No.3, pp.43-61, 2018.
DOI: <https://doi.org/10.32341/jcer.2018.09.31.3.43>
- [26] J. W. Yoon,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grit up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of Korea, pp.18-19, 2017.
- [27] A. J. Hong, E. H. Hwang, Y. S. Cho, Y. J. Kim, M. O. Choi,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reflective learn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6, No.4, pp.1-21, 2017.
- [28] J. E. Park,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of Korea, pp.12-14, 2017.
- [29] J. S. Son, B. H. Kim,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internet activities, career attitude maturity, social support, self-control according to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17, pp.75-97, 2009.
- [30]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Yeonsei University of Korea, pp.66-80, 1985.
- [31] K. J. Hong, S. C. Han, "The mediating effect of failure-toler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maturity, as perceived by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5, No.3, pp.125-143, 2014.
DOI: <https://doi.org/10.14816/sky.2014.25.3.125>
- [32] J. S. Eccles, "Understanding women's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choices: Applying the Eccles et al. model of achievement-related choic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18, No.4, pp.585-609, 1994.
DOI: <https://doi.org/10.1111/j.1471-6402.1994.tb01049.x>
- [33] G. Hackett, D. Esposito, M. S. O'Halloran, "The relationship of role model influences to the career salience and educational and career plan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35, No.2, pp.164-180, 1989.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9\)90038-9](https://doi.org/10.1016/0001-8791(89)90038-9)
- [34] S. Y. Kim, S. H. Hong, "Identifying latent profiles in vocational preparation behaviors of vocational highschool students and testing its relationship with vocational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Vol.14, No.1, pp.93-116, 2013.
- [35] R. H. Kang, M. J. Lee,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career attitude, occupation value,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0, No.5, pp.941-953, 2011.
DOI: <https://doi.org/10.5934/kihe.2011.20.5.941>
- [36] S. J. Cho, *An effect of parents' social support on middle school students' happiness: The moderating effect of grit*. Master's Thesis, Yeonsei University of Korea, pp.30-32, 2017.
- [37] A. Y. Kim, The mediation effe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support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of Korea, pp.23-24, 2018.
- [38] S. A. Stumpf, S. M. Colarelli, K. Hartman,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 (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No.2, pp.191-226, 1983.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28-3](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28-3)
- [39] R. B. Slaney, "Influence of career indecision on treatments exploring the vocational interest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0, No.1, pp.55-63, 1983.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30.1.55>
- [40] B. W. Westbrook, E. E. Sanford, P. O'Neal, D. F. Horne, J. Fleenor, R. Garren, "Predictive and construct validity of six experimental measures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7, No.3, pp.338-355, 1985.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5\)90041-7](https://doi.org/10.1016/0001-8791(85)90041-7)
- [41] W. S. Park, *The relation of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o psychological separation, sex-role identity, academic achievement for Korean high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of Korea, pp.38-39, 2002.
- [42] J. Y. Park, *The influence of youth's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self-efficacy regarding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of Korea, pp.32-33, 2017.

- [43] H. J.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of Korea, pp.27-30, 2017.
- [44] M. Y. Kim, *Effects of father's role performance on adolescents' academic self-efficacy: Center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resilience*. Doctoral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of Korea, pp.43-48, 2017.
- [45] H. J. Kim, H. S. Kim, D. J. Kim, "The Mediating Effect of 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set and GRIT in Adolescent Martial Art Athletes", *The Journal of Korean Alliance of Martial Arts*, Vol.21, No.3, pp.17-30, 2019.

정 철 상(Jung chul sang)

[정회원]



- 2002년 3월 :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 (교육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관심분야>

청소년 역량, 청소년 지도, 이벤트, 축제